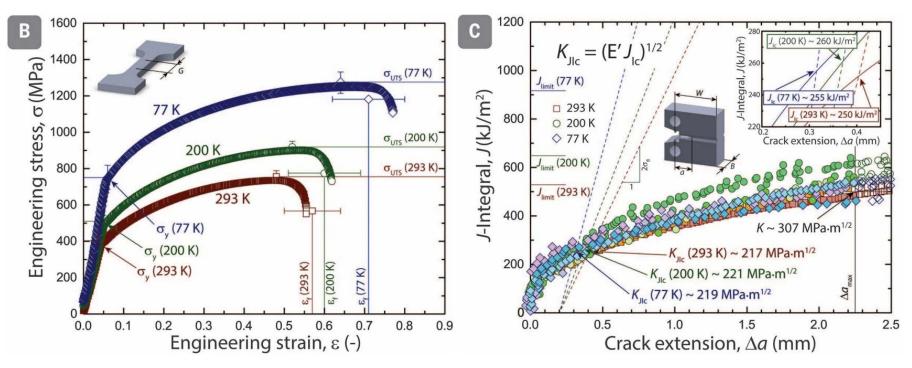
Low temperature yield strength of BCC refractory alloys

2017. 06. 19

ESPark Research Group 김일환, 김상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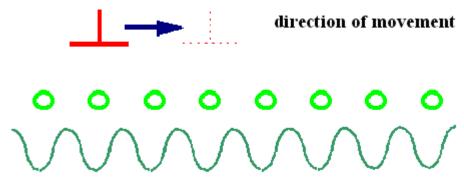
Gludovatz, Bernd, et al., Science 345.6201 (2014): 1153-1158.



- CrMnFeCoNi alloy showed superior mechanical property in cryogenic temperature.
- HEA is considered as an structural materials for extreme environment.

Peierls-Nabarro stres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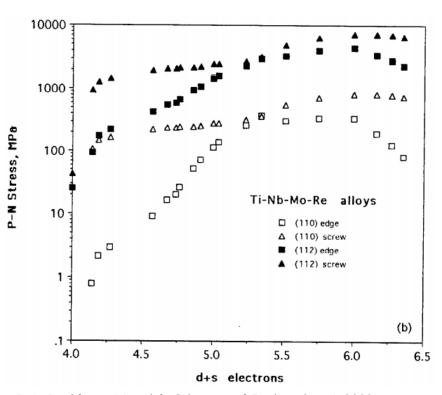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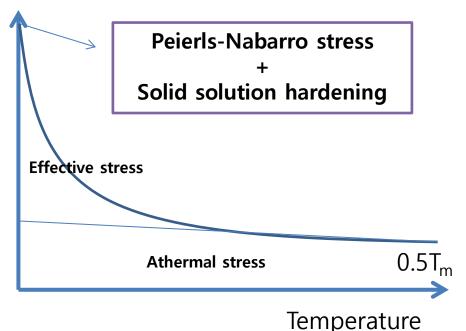
Peierls Potential for movement

Peierls-Nabarro stress: 0K에서 전위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stress

$$\tau_p = \frac{G}{(1-\nu)} \exp(-\frac{4\pi d}{2b(1-\nu)}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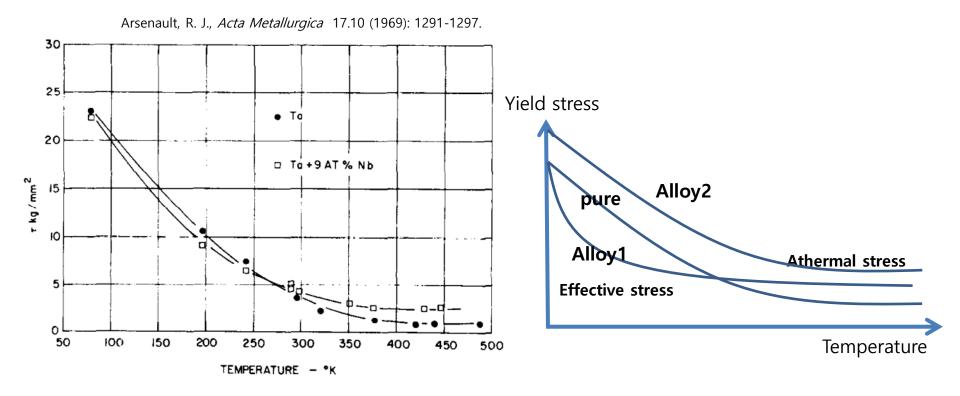
Yield stress



D. L. Davidson,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: A, 2000

Solid solution weakening in BCC alloys





- Solid solution weakening 현상이 저온 영역에서 관찰됨.
- 고온에서의 항복강도는 저온에서의 강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.
- Effective stress의 감소 정도를 줄여 athermal stress 유지 목적.

Experimental setup



- Low temperature



- High temperature



• Pure W(6), $W_{60}Ta_{40}(5.6)$

WTaVTi(5), WTaVTiCr(5.2)

WTaVTiNb(5), MoTaVTiNb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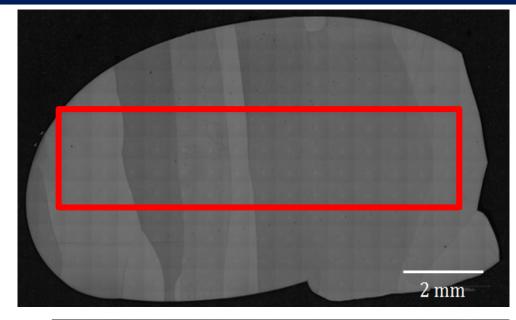
Ductile Brittle 4.0 5.0 6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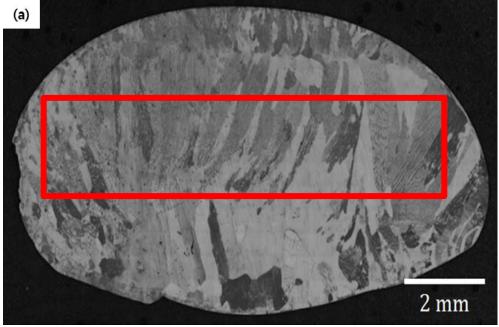
3d: 22 Z3 Z4 Cr

5d: 72 73 74 W

Result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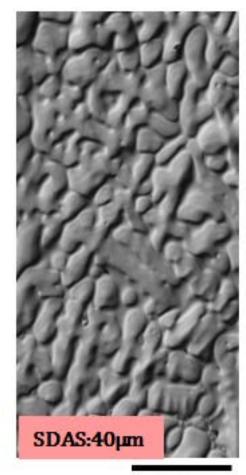




- 결정립 크기 Pure W: 약 1mm
- W60Ta40: 약 500µm
- Hall-petch relation에 적용 받지 않는 범위.



WTaVTi WTaVTiC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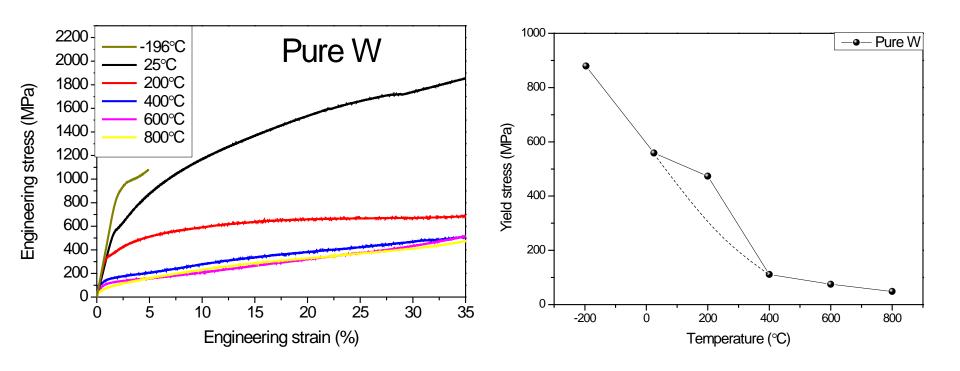


100µm

100µ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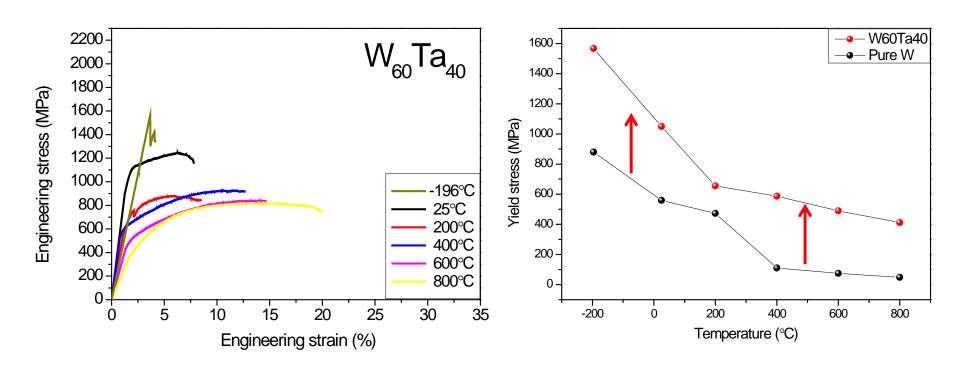
- 같은 미세구조.
- 결정립 크기 약 200μm.
- 수지상의 분율차이. (정량 분석 x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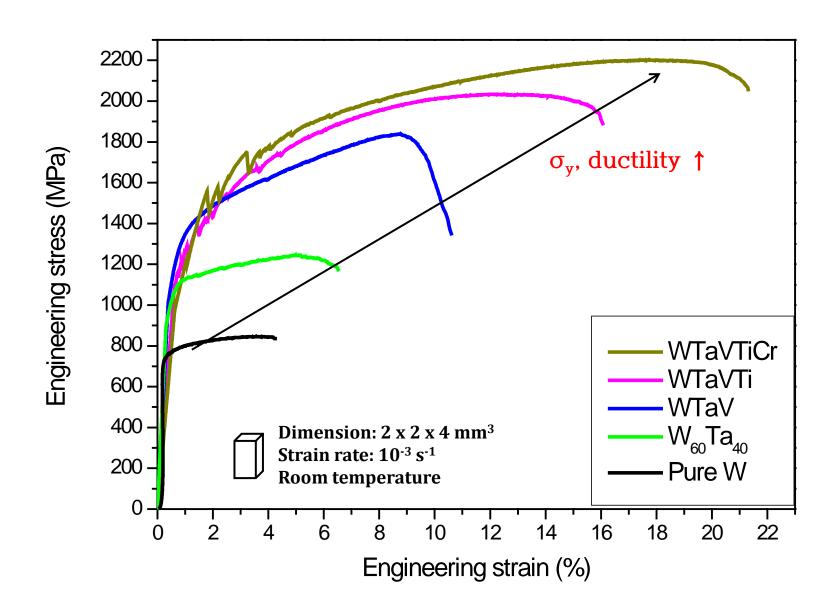
- 순 텅스텐의 경우 -196℃ 항복강도 약 900MPa (결정립 크기:1mm) (ref. 결정립 크기 40µm: 1380MPa)
- 900MPa → 50MPa의 급격한 항복강도 감소
- 200 °C 부근에서 abnormal 포인트 관찰





- 높은 취성으로 인해 탄성변형 중 파단 발생.
- 고용강화 효과가 effective stress와 athermal stress를 증가시킴.





Yield stress (MPa)

200

0-

-200

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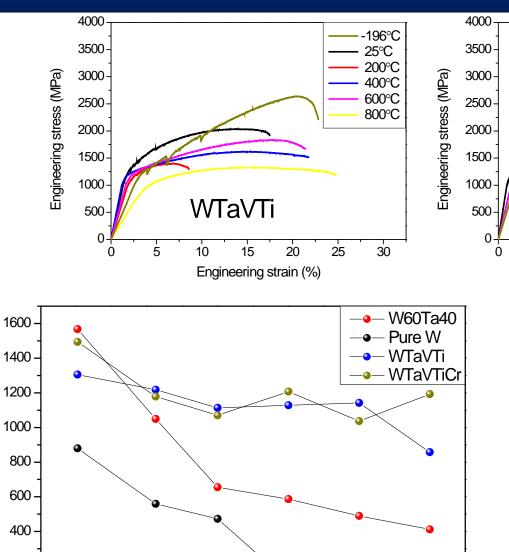


-196°C

25°C

200°C

400°C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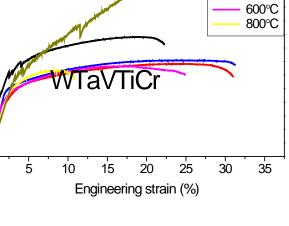
200

Temperature (°C)

400

6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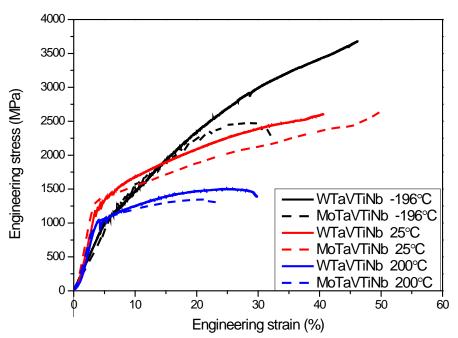
8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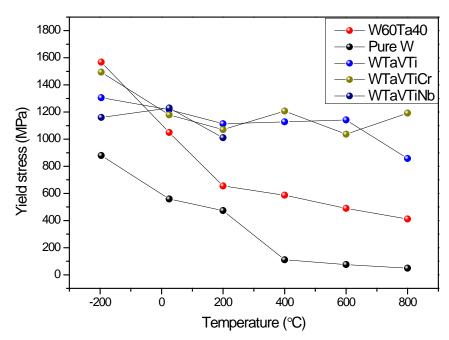


- 저온에서 고온까지 다성분 합금의 항복강도 유지.
- Strain hardening rate ↑
- 고용강화 효과로 인한 높은 항복강도.
- Athermal stress가 고용강화 로 인하여 effective stress 수 준으로 상승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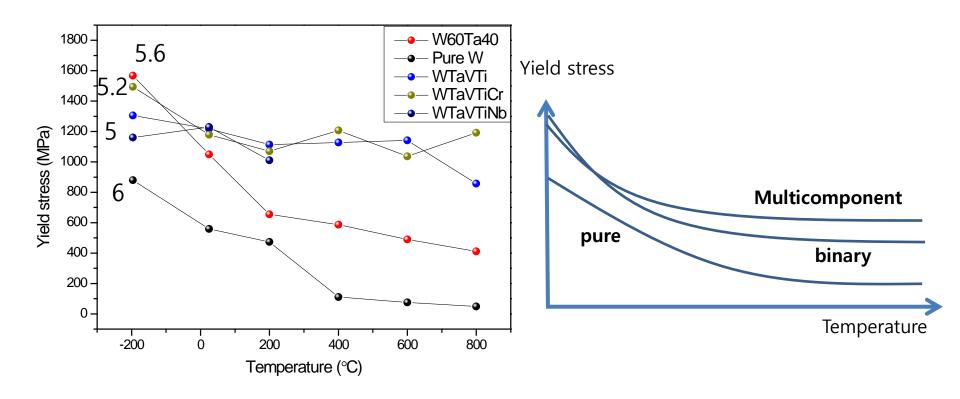
WTaVTiNb, MoTaVTiNb





- W과 Mo을 치환 고용시킨 합금에서 온도에 따라 비슷한 거동을 보임.
- 이원계 합금에서 다성분계 합금으로 치환 시 저온에서 solid solution weakening이 관찰됨.
- 다성분계 합금에서 급격한 고온 연화는 발생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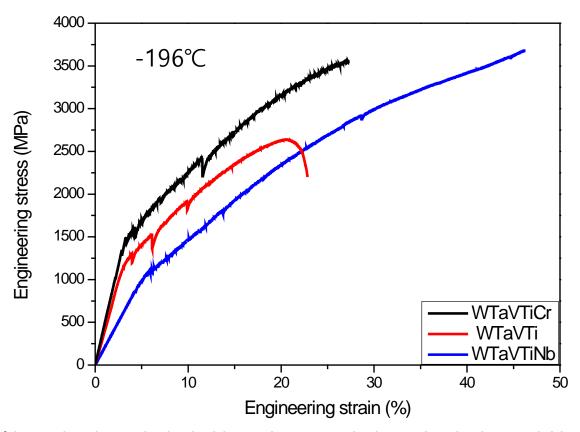




- 다성분계로 갈수록 athermal stress 영역이 높아져 고온 항복강도 안정.
- 저온 solid solution weakening 현상 -> effective stress 영역에서 P-N stress가 VEC에 따라 줄어듦

: 다성분계 합금에서 고용강화로 인한 고온 연화 저항성이 향상





- 다성분계 합금의 저온에서의 항복강도는 원자크기 차이로 인한 고용강화 정도와 VEC에 관계.
- Nb이 첨가되면 연성 향상

Elements	W	Та	V	Ti	Cr	Mo	Nb
Atomic size	139	146	134	147	128	138	146
(pm)							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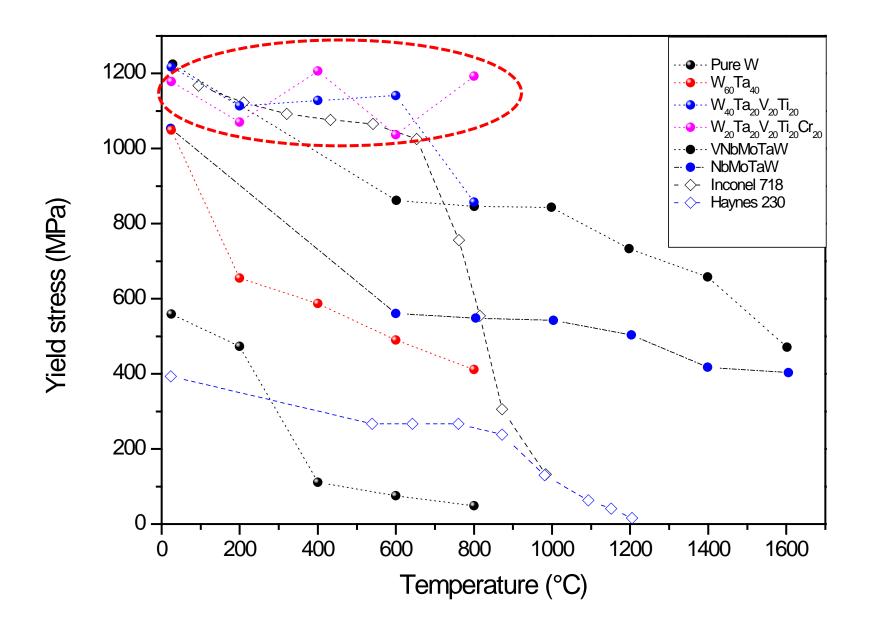


- BCC Refractory HEA의 저온 기계적 특성을 분석함.
- Pure W과 binary 합금에서 고온 항복강도가 급격히 감소함을 관찰.
- 다성분계 합금에서는 저온 및 고온 항복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관찰.
- 다성분계 합금에서 effective stress의 감소폭이 적고 이는 고용강화 효과 임을 정성적으로 분석함.
- 결국, athermal stress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.
- 다성분계 합금에서의 고용강화를 이용한 저온부터 고온까지의 합금설계를 적용할 수 있음.

Future work

- 고용강화의 정량적 분석 시행
- Effective stress와 athermal str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
- Strain hardening rate 분석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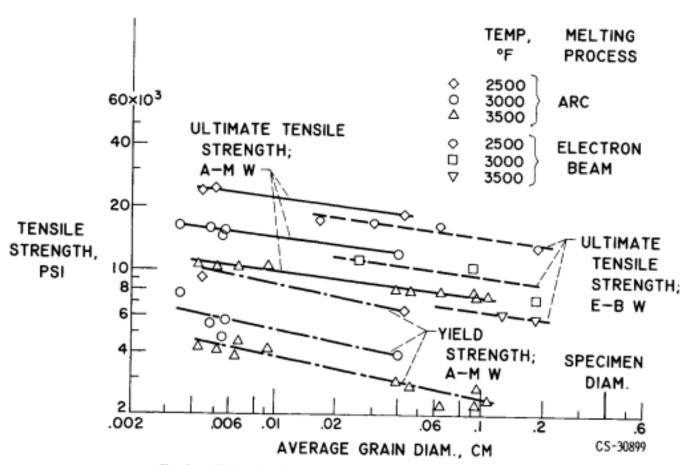


Fig. 2. -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s of arc-melted tungsten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electron-beam-melted tungsten as a function of grain size.



